‘카드매출 빅데이터를 통해 본 서울소비경기지수’ 개요

- **서울소비경기지수**

  시민생활에 밀접한 소매업, 숙박업, 음식점업 등 소비중심업종에 대하여 전체 또는 개별생산활동의 종합적인 파악을 위하여 업종별 부가가치를 가중치로 적용한 지수

- **데이터 :** 신한카드 카드매출 빅데이터
- **공간적 범위 :** 서울 및 5대 권역

도심권	동남권	동북권	서남권	서북권
종로, 중구, 용산	서초, 강남, 송파, 강동	성동, 광진, 동대문, 중랑, 성북, 강북, 도봉, 노원	양천, 강서, 구로, 금천, 영등포, 동작, 관악	은평, 서대문, 마포

- **지수의 산식 :** 라스파이레스(기준시점고정가중평균)산식
- **서울 및 각 권역의 가중치**

  산업 간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내며, 해당 지역 산업별 기초가격 부가가치 기준 가중치를 적용, 각 권역의 지수는 해당 지역의 산업 가중치 합이 1로 산정된 독립적인 지수로 각 권역 증감률의 합이 서울전체의 증감률과 일치하지 않음 Σiwi =1, wi는 산업별 가중치를 의미 (기초가격 부가가치는 2015년 경제총조사 기준 인건비 + 영업이익 + 감가 · 대손상각비 + 세금과공과임)

- **지수종류 :** 경상지수및불변지수

  - 경상지수 : 월별 매출액을 기준년도 매출액(2017년 평균)으로 나누어 작성한 지수
  - 불변지수 : 경상지수 ÷ 디플레이터 × 100 (디플레이터는 업종별 생산자물가지수 활용)

- **기여도**

  종합지수증감률 = Σi기여도i , 기여도i=(△하위지수i / △종합지수) × 종합지수증감률 , i는 각 산업을 의미

  하위지수(산업 각 부문)가 종합지수의 증감률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보여줌

유의사항

- ‘카드매출 빅데이터를 통해 본 서울소비경기지수(이하 서울소비경기지수)’는 시민생활에 밀접한 소비중심 업종(소매업 및 숙박·음식점업 등)의 생산활동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월간 소비지수이다.
- 소매업 및 숙박·음식점업에 대한 소비는 서울 민간최종소비지출의 약 30%로 소비경기의 핵심 요소이다.
- 서울소비경기지수의 장점은 매월 1억건의 신한카드 매출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서울 세부지역의 소비경기까지 모니터링 할수 있다는 것이다.
- 서울소비경기지수는 통계청의 ‘서울 서비스업 생산지수’를 벤치마킹하여 생산 측면의 매출액을 중심으로 지수가 구성되었으나, 분석대상인 소매업 및 숙박·음식점업이 소비밀착업종임을 고려하여 지수의 명칭을 소비경기지수로 명명한다.
- 서울소비경기지수는 서울연구원의 연구자료로 국가승인통계가 아니며, 통계청의 ‘서울 서비스업 생산지수’와는 지수의 공간 및 시간적 범위와 데이터 출처에 따른 표본이 서로 달라 두 지수의 방향 또는 증감율이 상이할 수 있다.
- 신한카드 매출 빅데이터는 개인 및 법인이 이용한 신용·체크카드 소비를 서울지역에 소재한 가맹점의 매출액으로 집계한 것으로, 서울시민의 카드소비 뿐 아니라 서울외 지역 국민들이 서울지역 내에서 사용하는 카드소비를 포함한다. 단, 무점포소매업은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울시민의 소비(지출)로만 집계 하였다.
- 신한카드 매출 빅데이터는 서울 소매업 및 숙박·음식업 전체 매출의 약 16%로 추정된다. 카드사의 점유율 및 카드사 용비율 변화에 따라 실제 매출액 대비 과소 또는 과대 추정될 소지가 있으며, 카드 가맹점의 업종 변화 및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경상 및 불변지수가 일부 조정될 수 있다.
- 서울소비경기지수는 물가변동분을 제거한 불변지수의 전년동월비를 중심으로 작성 및 분석되며, 설명절, 연휴 등의 월간 이동과 영업일수 변동, 그 외 불규칙 요인에 의한 효과가 분석결과에 포함되므로 해석 및 이용에 유의해야 한다.
- 서울소비경기지수는 카드매출 빅데이터의 가공·조정·변환을 통해 산출된 지수로 신한카드 원본 데이터의 트렌드와는 차이가 있다.